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남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된 어학원은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times-slc라는 어학원입니다. 학원의 규모는 대략 남자 학생사 크기입니다. 큰 건물 하나에는 기숙사, 교실,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5층까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5층 기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1층 건물에는 식당이 있으며 작은 운동장이 위치해있고 옆에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학원 내에서 알차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도착한 다음날 레벨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스피킹, 리스닝, 단어, 독해 등 다양한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되며 그 평가를 토대로 5명씩 5개의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수업은 8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수업은 위의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누어진 반별로 수업이 진행되며 나머지 3개의 수업은 1:1 수업이 진행됩니다.</p> <p>1:1 수업에는 impact issue, pattern english, voca 가 있습니다.</p> <p>impact issue는 선생님과 하나의 상황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해야한다는 것이 부담되었지</p>

만 선생님께서는 대답을 천천히 기다려주시며 문장을 잘 고쳐주십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수업 때 진행하다보니 제일 말하기에 도움이 된 수업중 하나입니다.

pattern english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쓰이는 예문을 배워나갑니다. 그 예문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예문을 써야하는지 배우고 예시를 들어가며 문장을 익혀나갑니다.

voca는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로 여러 예문을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가장 예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진 수업입니다.

그룹 수업으로는 멀티미디어, 문법, 칼란, 리딩, 리스닝 이렇게 다섯 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수업은 뮤직비디오, 광고, 다큐, 영화 예고편 등을 접해보며 그 속에서 사용된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8개의 수업 중에는 제일 흥미롭게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1개의 뮤직비디오와 2개의 광고를 제작하여야 했습니다. 이 과제 때문에 개인시간을 좀 뺏기긴 하였지만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저희들만의 추억을 갖게 도와주었습니다.

문법수업은 한국에서 배웠던 문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나 한글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영어로 사용되어 약간 헷갈렸습니다. 문법을 배우고 직접 예문을 만들어 익혀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칼란 수업은 발음연습, 영어를 들을 때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발음을 제대로 고쳐주시고 영어를 들을 때 바로 영어로 해석하여 대답하게끔 연습시킵니다. 또한 반복적인 대답을 통해 문장을 외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딩 수업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독해수업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미리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게끔 요구되었던 수업입니다.

리스닝 수업에서는 cnn뉴스를 들으며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듣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제는 선생님들마다 달랐습니다. 제 담당 선생님들은 과제를 거의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과제가 있어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입니다.

	<p>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배려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선생님들의 연령대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또래부터 3~5살 위의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p> <p>또한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애착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도록 노력하려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수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빅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이나 그 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는 1달 동안 많은 정이 들게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p>저희는 매주 공식적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p> <p>처음에 학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라 바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선생님들과 함께 수빅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p> <p>선생님 한 분과 학생 다섯 명이 팀을 이루어 이동하였습니다.</p> <p>처음으로 하버 포인트라는 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환전을 하고 유심칩을 샀습니다. 환전은 가져온 달러의 반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몇 주 후 환전하였습니다. 유심칩은 1주일에 1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1기가에 100페소이며 유심칩 가격은 별도였습니다. 그 후 퍼블릭 마켓, 수빅베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학원에 돌아와 다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날은 수빅에는 어떤 유명한 장소가 있는지 잠깐 둘러보는 정도의 활동이었습니다. 자세히 구경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날은 활동을 위한 비용은 들지 않았으며 유심칩, 식사에 돈을 사용하였습니다.</p> <p>첫 주에는 마닐라 대학교를 방문하였고 마닐라에 위치한 moa를 방문하였습니다. 마닐라로는 큰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4~5시간이 걸려 도착하였습니다. 버스가 매우 추웠습니다. 마닐라대학교에서는 1명의 대학교 학생과 2명의 저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공통점을 광고로 만드는 활동, 다른 팀들과 합동으로 한 문장을 설명하는 활동 등을 진행하였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학교를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략 4시간 정도 머문 뒤 moa로 이동하여 4시간정도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p> <p>두 번째 주에는 고아원 봉사활동과 안바얀 쿠브 리조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고아원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각자 300페소씩 기부하여 고아원 아이</p>

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서 기부하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2~3시간 정도 머물며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각자 아이들과 팀을 이루어 미니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산 간식도 같이 아이들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시간을 보냈던 아이와 정도 들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안바얀 쿠브 리조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 비용을 내주어 부담이 없었습니다. 회원제로 진행되는 리조트여서 학원 측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영장과 비치가 한 곳에 위치하여 골라서 놀 수 있었습니다. 요트, 바나나 보트 등의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당의 음식도 맛있었고 샤워시설 등 다른 시설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회원카드로 먼저 결제한 다음 나갈 때 결제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장의 카드로 25명의 식사와 각자의 지출을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대표라 이 때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어 문제를 수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액티비티때 이곳에 가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대표 분께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사용한 내역을 단독방에 올려 마지막에 계산하기 수월하도록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10%의 서비스비를 거둬가기 때문에 계산 시 꼭 각자 10%정도의 여유돈을 걸어서 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요트를 탔습니다. 학원 근처 요트장에서 출발하여 총 3시간정도 요트를 탔습니다. 이 활동도 학원 측에서 모든 돈을 사용해주어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30~40분정도 이동하여 바다에 멈춰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스노쿨링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스노쿨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구명조끼도 너무 허술해서 아쉬웠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아쉬움이 남았던 활동입니다. 그러나 풍경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또한 이사님께서서 요트위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리해보면 수빅투어, 마닐라대학교 방문, moa방문, 고아원 봉사활동, 안바얀 쿠브 리조트 방문, 요트투어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필리핀 건기 때 어학연수를 가게 되어 생각보다 날씨는 괜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여름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짐을 쌀 때 반팔을 가져가야하는지 긴팔을 가져가야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여러 벌 다양하게 챙겨갔습니다.</p> <p>학원 내에서는 에어컨을 세게 트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었기 때문에 반팔에 걸칠 수 있는 걸옷을 한두 개 가져가 걸쳤습니다.</p> <p>긴바지는 하나를 챙겨갔는데 평소에 긴바지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때는 에어컨을 틀고 잤기 때문에 잠옷으로는 긴팔 긴바지를 입었습니다.</p> <p>또한 운동화도 한 번도 안 신었으며 거의 샌들과 슬리퍼를 이용하였습니다.</p> <p>밖에서 우산을 사용했던 기억이 없었고 비가와도 잠깐 오고 조금씩 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비가 오기 직전에는 날씨가 엄청 습해지고 더워졌습니다.</p>
안전	<p>수빅은 총기사용이 금지된 구역으로 필리핀 내에서는 정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외인 만큼 자기 짐은 자신이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항상 신경 썼습니다. 수빅 쪽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하버포인트 뒤쪽 sm몰 뒤쪽 올롱가포시는 훨씬 조심해야하는 분위기였습니다.</p> <p>나갈 때 항상 필요한 정도의 돈과 필요한 물품만 딱 챙겨나갔습니다. 되도록 작은 미니백을 앞으로 돌려 메고 다녔으며 핸드폰에는 손가락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붙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조심성이면 아무문제 없을 듯 하였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4주를 지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해주셨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좀 났고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방에서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였고 방마다 냉장고가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밖에서 사온 음료수나 음식 등을 냉장</p>

	<p>고에 넣어되었습니다.</p> <p>청소는 격일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바닥, 쓰레기, 화장실 청소 등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방에는 없었지만 다른 방에서는 도마뱀, 바퀴벌레, 개미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자, 가드 분들을 불러 해결하였습니다.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엄청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p> <p>빨래는 아침에 말기면 그 다음날이나 이틀 뒤 아침에 찾을 수 있습니다. 건조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방별로 바구니를 따로 두고 매 번 세탁물 개수를 적어 내야했으며 방별로 빨래건조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섞일 위험이 없어 좋았습니다.</p> <p>그러나 속옷은 직접 손빨래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식당 뒤에 빨래 말리는 곳이 바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p> <p>일,월,화,수,목은 매일 10시에 점호를 금, 토는 12시에 점호를 진행하였습니다.</p> <p>와이파이는 딱 중앙복도에서만 사용이 잘되었습니다. 방에서는 3g를 사용하였는데 정말 느렸습니다. 학원 측에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에는 와이파이 사용을 막아두었습니다. 방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잘 되지 않아 일찍 잘 수 있었습니다.</p> <p>중앙복도 쪽에는 강의실 2개가 있는데 그 곳은 11시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공부, 회의, 와이파이 사용 등을 하였습니다.</p> <p>또한 식당 옆에는 작은 매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과자, 음료수, 휴지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되도록 하버포인트나 sm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절약되었습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학교식당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밖에서 한식을 사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식당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필리핀 요리사 분께서 한식을 만드시는데 메뉴마다 감탄하였습니다. 제가 막입이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였습니다.</p> <p>동일메뉴는 세 번 정도 먹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메뉴를 선정하여 요리해주셨습니다. 요리사님과 친해져 정말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몇 번 요리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요리사분은 그만큼 정이 많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요리하셨습니다.</p> <p>외부 식당 중 제일 맛있던 곳은 코코라임, 텍사스 조, 카페발루가, 피어앤</p>

	<p>그릴앤바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식당을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유명한 식당들은 거의 다 가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점심, 저녁을 사먹었습니다.</p> <p>또한 학원에서는 줄리비, 맥도날드를 주문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5시에 먹기 때문에 허기질 때 야식으로 한두 번 시켜먹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대부분 택시, fb를 이용하였습니다.</p> <p>학원 2층 후문에서 나갈 때는 매번 fb를 이용하였습니다.</p> <p>13페소(300원 정도) 정도면 하버 포인트까지 나갈 수 있어서 편리하였습니다.</p> <p>들어올 때도 거의 fb를 이용하였으며 급할 때나 힘들 때만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20페소(3000원 정도)이며 인원이 많으면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꼭 흥정을 하고 120으로 부른 뒤 택시를 탔습니다.</p> <p>택시를 이용할 때는 줄리비, 코코라임 쪽에서 직진하면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이 하버 포인트보다 훨씬 택시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fb는 혼자타면 좀 무섭긴 했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혼자타지는 않았습니다.</p> <p>그리고 꼭 fb나 택시를 탈 때에는 저희의 종착점을 물어보고 가격을 재확인 후 탑승하였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사비	440.000	360달러로 한국에서 환전 후 페소로는 필리핀에서 환전
합계	1,175,4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우선 다른 분들의 후기를 꼭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질문을 한 후 짐을 싸고 준비를 해주세요.

건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반팔에 비중을 두고 긴팔, 긴 바지 등을 몇 벌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리퍼는 정말 유용합니다. 꼭 챙겨주세요.

환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전 되도록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 더 많이 돈을 바꿔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대략 40만 원 정도를 환전해갔는데 마지막 주에는 좀 빠듯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이 든 마스터, 비자카드를 준비해주세요. 갑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다쳤을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공부할 책, 읽을 책을 가져갔으나 한 번도 펴보지 않았습니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경험을 더 하려고 노력하였고 열심히 놀다보니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공부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무겁지 않다면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에서 쉴 때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아 정말 심심합니다. 영화 3~4개정도 다운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이파이존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조별과제를 할 때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

전자사전은 고장이 나서 가져가지 못했으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 수업 때 저는 선생님께서 되도록 사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해 선생님이 그 단어를 알려주시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더욱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과제를 진행할 때인데 와이파이존에서 핸드폰 사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샴푸, 린스 등은 현지에서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짐을 싸서 가져갈 때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이 많은 무게를 차지하였습니다.

작은 가방 동전지갑, 작은 지갑이 필요하였습니다. fb탈 때 동전지갑이 따로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지갑에는 하루에 쓸 돈을 정해서 넣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른 지갑에 넣어 방에 두었습니다. 거의 밖에 나갈 때 화장품 몇 개, 지갑 등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미니백이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물품을 살 때는 에코백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한국처럼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종이봉투를 안고 다녀야 하는데 종이가 흐물흐물해지면 불편하였습니다. 에코백에 넣어서 다니면 편하

다.

구글 지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1기가를 4~5일 간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량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정말 컸습니다. 되도록 와이파이존에서 있으려고 하였으나 3g로 페이스북, 보이스트록을 하는 경우가 생겨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끔씩 방에서 페이스북 등이 잘 터져 3g로 사용하다보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카드를 한 번에 두 개씩 사서 다녔습니다. 스마트 통신사 기준 1기가는 2500원정도 합니다. 3g로 터지다가 갑자기 e가 뜰 때가 있는데 이럴 땐 핸드폰을 껐다 켜었습니다. 와이파이존에서는 페이스북, 보이스트록이 잘 터지기 때문에 연락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마다 잘 안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건은 5개 이상 정도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해변이나 호텔수영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수건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복은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안바얀 쿠브 수영장은 수영복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변이 있어서 물놀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영하시고 바닷가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래쉬가드를 정말 자주 입었습니다.

저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버포인트나 sm물만 갔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올롱가포시 안쪽이나 더 먼 곳 까지 조심하여 돌아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수빅 관광이나 맛집을 찾아가서 가보고 싶은 곳은 다 둘러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택시를 탈 때는 꼭 흥정을 한 후 가격을 확정 짓고 목적지를 들은 뒤 탑승하세요. 하버 포인트에서 학원까지는 120페소가 기본요금입니다.

모기퇴치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재미 길에 뿌리거나 나가기 전에 다리나 팔에 뿌리고 나가면 모기에 덜 물리고 좋습니다.

올헨즈, 까마얀 등의 비치는 사유화되어있어 입장료가 있습니다.

오히려 호텔수영장이 가격이 싸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치가 훨 좋았습니다.

해변이나 호텔수영장갈 때 300~500정도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우연히 학생대표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리더를 맡아본 터라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되도록 대표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하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후에 학생대표가 되실 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는 학원 측과 연락, 학생들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단톡방 생성, 학생들 질문을 국제교류처 선생님께 여쭙보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되도록 밴드공지를 빨리 읽도록 카톡방에 공지를 하였고 공식적인 질문은 국제 교류처 선생님과 밴드 단톡방에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다 같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매일 밤 점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되도록 담당선생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학생들에게 방에 들어가 있도록 부탁드리면 됩니다. 담당자분과 함께 직접 학생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매일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지가 올라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결해야하는 부분 등 문제가 생길 시 핸드폰이 방에서는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점호시간을 이용하여 공지하는 것이 편합니다. 어차피 방마다 점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 건의사항을 학원 측에 전달, 이사님과의 회의를 통한 전달사항을 단톡방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짜준 터라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일도 많이 없었으며 공식적 활동의 비용지원으로 금전적 부분 또한 불편하고 힘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 액티비티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단체로 있을 때 말로 공지하는 것도 좋지만카톡방에 공지를 올려 모두가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공지하면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못 듣고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말이 전환되어 학생들을 헛갈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것 보다 여자대표, 남자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방별로, 조별로, 같이 노는 사람들 별로 인원체크, 돈 분담 등을 진행하시면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딱히 대표로서 힘든 점은 없었으나 리더십이 많고 행동력이 강한 분이 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단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단체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

중하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대외활동을 안했던 터라 다른 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활동으로 여러 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원 사람들과도 많은 교류로 인하여 많은 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8시간씩 공부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어학연수 후에는 그 두려움은 좀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단어로만 질문하고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문장을 구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업방식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수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4주 동안 알차게 공부하고 알차게 놀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빅 안에서 밖에 놀지는 못하였지만 비치, 수영장, 여러 맛집, 시내 등을 잘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특히 주말에 했던 활동들은 너무 좋은 기억들로 남았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어학연수였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학교 측에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닐라대학교에서 같은조원들과 함께 찍은사진</p>	<p>까마얀 비치</p>
	
<p>기숙사에서 바라본 학원 풍경</p>	<p>같은 조원들과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p>
	
<p>수빅투어 시 수빅베이에서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찍은사진</p>	<p>가장 좋아하던 식당 코코라임 음식사진</p>